

Japanism을 반영한 패션 디자인 전개에 관한 비교 연구

이 은 령* · 배 주 원** · 이 경 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sign Developing of Japanism

Eun-Rung Lee* · Ju-Won Bae** · Kyoung-Hee Le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3. 8. 2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study what is the way to express difference fashion design between Japanese fashion designers and Western fashion designers in the 1990s.

The design data were 422 picture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which represented the Japanism style design from fashion collections and analyzed by literature study and classification categor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Early general Japanism expression was directly borrowed from traditional fashion design elements and has changed indirectly with fashion trend.
- 2) Japanese fashion designers have used color, fabric, and pattern than shape to express Japanese traditional images.
- 3) Western fashion designers have directly borrowed aesthetic elements of Kimono design, that is, layering, bending, neck-line, sleeve, and traditional Japanese men's wear to express Japanism.

Key words : Japanism design(일본풍), orientalism(오리엔탈리즘),

Japanese fashion designer(일본 디자이너), western fashion designer(서양 디자이너)

I. 서 론

서양 디자이너들은 20세기 후반 서구디자인의 획일성에 대한 한계성에 염증을 느끼고 신비롭고 이국적인 동양의 정신세계와 아름다움(美)에 관심을 기울이며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서양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계 패션의 흐름이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와 생태계 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한 동양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서구 패션계에 일어나게 되고 이는 오리엔탈리즘 패션 경향에서 중국과 일본 전통복식의 재해석이 증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 전통복식에 대한 세계 패션계의 관심은 19세기 중엽 서구 문화 전반에 일본 취미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kimono)가 서구 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 1970년대 후반 일본 디자이너들이 산업화된 정부의 명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션계에 진출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이 패션에 확대 재생산된 Japansim(일본풍, Japanism Look)을 형성하게 된다. Japanism은 오리엔탈패션 산업이 등장하면서 더욱 부각되었고, 동양적 가치관에 관한 논의는 동양의 사상과 문화가 서구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양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새롭게 부각된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문호개방 등으로 동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와 때를 맞추어 동양풍 의상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이때 일본 디자이너들은 좀 더 진전된 일본의 'Japanism Look'을 유행시켜 일본의 전통적인 민속복을 기초로 한 모더니즘의 미학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패션은 기존의 영역들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퓨전(Fusion)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동양복식에 서양복의 기능적 형태나 구조를 받아들이거나, 서양복식에 동양복식의 색채나 소재, 문양 또는 장신구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나타냄으로써 상호 통합되어 전개됨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나타난 동양모드는 젠(Zen)스타일로 대표되는데 이는 과장된 장식과 복잡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살린 단순 간결한 형식미

와 천연 섬유, 절제된 장식, 차분한 색채, 간결한 실루엣으로 표출되었다. 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 디자이너들 외에도 Christian Dior, Jean Paul Gaultier, John Galiano 등과 같은 세계 정상급의 서양 디자이너들이 기모노를 이미지로 한 작품을 대거 선보였으며, 이를 통하여 과거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양면적 가치를 표현하는 복고성의 출현도 볼 수 있었다. 2002년 S/S 트렌드 경향에서도 민속적인 패션이 강세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리엔탈리즘, 에스닉, 퓨전, 젠 스타일 등의 다양한 스타일로 동양적 감각을 표현한 디자이너가 많이 나타나고 그 발상의 근원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몽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대 오리엔탈리즘은 지역적 특유의 장식적 요소들이 형태나 단순한 이미지를 표현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이미지·색채·문양·재질 등의 독특한 복식요소들을 서양복에 도입함으로써 이국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고 그 속에 포함된 함축적 의미와 문화적인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패션은 더욱 다양한 크로스오버 감각의 디자인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패션계에서 독특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Japanism 디자이너가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환기시킴과 동시에 보다 국제적·미래적 감각의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Japanism 디자이너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비서구적 개념의 복식을 디자인하기 위한 표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며, 더불어 이 비교 연구는 향후 한국 디자이너와 패션산업의 해외 진출 시 보다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배경

전통복식은 한 민족의 정서를 함축하는 상징물인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으므로 패션 디자인의 창작과정에서 이미지 발상을 위한 대상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 먼저 이러한 동양의 전통복식들 중 한가지인 일본 전통복식을 현대에 접목시켜 세계적인 패션 흐름으로 자리잡은 Japanism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과 학계 연구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

기모노(着物)는 일본 복식사에서는 고소데(小袖)로 알려진 옷으로 성별, 계절,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앞에서 여며 오비(帯)로 묶어 입는 원피스형의 직선재단 의복을 가리킨다. 19세기말부터 서양복에서 많이 사용된 기모노의 용어에서 기모노란 의복의 부분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비의 특성이 나타나는 의복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조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모노는 평면재단의 직선적인 단순한 패턴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고 품에 여유가 있는 의복이다. 기모노의 형태 측면에서 우선 소매(袖)는 기모노의 구조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매폭이 좁은 도메소데(留袖)와 장식적으로 극대로 넓은 후리소데(振袖)와 같이 늘어진 소매자락이 커다란 특징이며, 형태의 변화가 심한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아름다운 주름은 유동적인 리듬감을 준다. 기모노의 소매는 서양 복식의 소매와는 다르게 단순한 형태와 밑으로 처진 어깨선이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모노는 오비와 끈으로 묶어 착용하는 것으로 오비는 의복을 몸에 고정시키는 목적과 물건을 허리에 패용하는 목적의 실용적·장식적 역할을 해왔으며 길이와 폭 뿐만 아니라 매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오비는 기모노를 세로분할하여 허리보다 위쪽에 묶으면 하체가 길게 보이게 하는 선의 착시현상으로 착장자의 인체 비율을 아름답

게 보이게 하고 기모노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상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기모노색과 오비색은 색상대비와 명암대비를 통하여 전체적인 조화 및 상호 강조의 역할을 한다. 기모노의 치맛자락(裾)은 키츠케(着付け)에 의하여 허리부터 이어져 의복의 하단에서 형성되는 기모노의 아름다움으로써, 그 위치가 하단부분이라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되고 특히 동작시 살짝 보이는 치맛자락과 조화된 안감을 통하여 일본적인 은근한 여성미와 동적인미를 표현하고 있다. 기모노깃(襟)은 그 폭에 따라 ‘히로에리(ひろえり)’, ‘세마에리(せまえり)’, ‘바치에리(ばちえり)’로 나뉘고 있으며, 여성들의 기모노에는 히로에리가 사용되고 있다. 기모노의 깃은 키츠케에 따라 자유롭게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기모노가 가지는 이와 같은 조형성 및 단순함과 더불어 기모노 형태의 또 다른 특성은 과장된 크기로써 이것은 기모노 길, 소매의 크기와 길이, 바지(袴)의 풍성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모노의 색채는 시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가사네이로메(襲色目)’라 하여 겹쳐 입는 의복들의 색 배합과 배열로 그 명칭에 까지도 특별한 감정을 불어넣었으며, 헤이안 시대 대표적 복식인 주니히토에(十二單)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색채 미학은 4계절의 꽃과 나무 등과 같은 풍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일본의 복식사상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운 복식 미학을 형성하였다. 한편 에도시대 초기에는 무가 계급을 중심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복식이 발전하였는데, 흔히 ‘다테(だて)’라 하여 복식의 색채와 문양 등에서 기발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에도시대 후기에는 민초(町人)들의 삶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키(粹)’ 취향이 나타나 예로 퍽한 분위기가 있으나 서민적이며 성인다운 미적 감각이 발달하였다. 그에 따라 색채 역시 여러 색을 화려하게 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두가지색만으로도 그 농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색조를 표현함에 따라 에도 후기에 나타난 ‘이키’ 취향의 색채는 ‘가사네이로메’로 대표되는 헤이안시대 이후의 색채문화와 전혀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회색(灰色), 차색(茶色), 남색(藍色)이라는 극히 수수한 색을

<표 1> 연구동향

연구자		연구내용		
이정후, 양숙희 (1997)	선미학의 범주	불이미 (不二美)	不二사상, 内外合一 사상 : 불확정성과 불투명성	성의 불확정성과 형태의 불확정성
		빈곤미 (貧困美)	物慾의 초월, 해방 : 와비(わび)미학	불균제
		순수미 (純粹美)	불립문자, 교외별전 : 모든 형식의 거부, 직관	무형식성
		공허미 (空虛美)	삼라만상의 본질 : 사비(さび)미학	불완전성
		유현미 (幽玄美)	욕망의 극소화	무장식, 무색상
김희정, 이경희 (2000)	동양적 복식이미지의 의미구조		현시성, 매력성, 섹시함, 활동성, 중량감, 고전성, 성숙성	
	한국적 복식디자인		전통복식의 형태적 특성과 자수, 문양 등 특징적인 디자인 구성요소 활용	
	일본적 복식디자인		풍성한 형태적 특성 및 오비의 사용과 함께 기능성과 장식성 효과를 함께 표현하여 현대적 이미지 표출	
	중국적 복식디자인		전통복식의 형태적 특성 유지하며 직접적 방법으로 세부적 장식요소 활용	
김희정, 이경희 (2000)	동양적 복식이미지의 포지셔닝		Simple-Decorative, Soft-Hard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선호도		매력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도 높음	
조정미, 김예형 (2000)	1800년대 후반	젠 스타일의 기원	동양에 대한관심의 시기	Paul Poiret
	1980년대 중반	젠 스타일의 발생기	동양 스타일의 외형적 채용	Issey Miyake Yohji Yamamoto
	1990년대 후반	젠 스타일의 발전기	동양의 내적 사상에 관심	Issey Miyake Helmut Lang
	1999년 ~	젠 스타일의 성숙기	선 사상의 생활화	Donna Karan
조영아, 유혜정 (2001)	1900 ~ 1950년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1960 ~ 1970년대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Folklore Orientalism)	
	1980년대		에스닉(Ethnic)	
	1990년대		퓨전(Fusion)	
	1990년대 말		첸(Zen)	
염혜정 (2001)	패미닌 스타일		우아와 요염의 미, 하데(派手)의 미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		지미(地味)의 미, 시부이 감각의 미	
	모던 및 아방가르드 스타일		방정(方正)의 미, 변화와 유동의 미	
윤보현, 배수정 (2001)	일본	꾸밈의 미	장식미(풍류, 회화, 건축 등)	
		꾸미지 않은 미	간결의 미 / 추의 미 / 무정형의 미	
	한국	자연의 미	소박미 / 질박미 / 무기교의 기교	
		주술의 미	벽사 / 길상의 미	
		해학의 미	자유분방함의 미(민화, 탈춤, 판소리)	
곽태기, 김은정 (2001)	한국	의상	치마, 저고리	
		화장	흰피부, 가늘고 등글러진 눈썹, 붉은 입술, 연지곤지	
		머리형태	없은머리, 땅은머리, 쪽진머리 등	
	일본	의상	기모노, 유니히도에	
		화장	게이샤 분장, 하얀피부, 검은눈썹, 붉은 입술과 아이라이너	
		머리형태	下齧(御所風), こうがいまげ	
	중국	의상	치파오, 노동복	
		화장	경극화장술, 작은입술, 검은눈썹, 손톱장식, 화전 등	
		머리형태	올린머리(고개,쌍계), 양과두, 대립시, 쟁반형의 평평한 올린머리	

기본으로 하고 이에 약간 화려한 색을 가미함으로써 색다른 맛을 내곤 하였는데, 이는 수수한 색과 아주 조금씩 대비시키는 방법에 의해 화려함이 내재된 은근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다.¹⁾

일본 문양은 동양에서 보기 드문 기하학적 무늬에서부터 자연의 동·식물문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를 전통적인 자수기법과 염색기법을 통하여 기모노 전체에 꼭 차게 배열하는 특유의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 문양의 독특한 특징은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인체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비대칭 무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양은 장식의 역할에서도 '본다'에서 더 나아가 '보인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²⁾

2. 연구동향

세계 패션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일본풍에 대한 학술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이정후, 양승희³⁾는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禪美學의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1980년대 이후 Rei Kawakubo, Issey Miyake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독특한 작품세계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작품을 통하여 와비사비(わびさび)라는 선미학의 범주를 크게 불미, 빈곤미, 순수미, 공허미, 유현미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희정, 이경희⁴⁾는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제1보)에서 동양적 복식디자인 이미지를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동양적 복식 디자인의 특성과 동양적 복식이미지의 의미구조 및 구성요인을 밝혀 삼국 복식이미지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일본적인 복식디자인은 풍성한 형태적 특성 및 오비의 사용과 함께 기능성과 장식적 효과를 함께 표현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사치스럽고 노숙한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보⁵⁾에서는 동양적 복식이미지의 포지셔닝과 선호도와의 관계를 살펴 밝히고 있다.

조정미, 김예형⁶⁾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Zen: 禪) 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패션계에 두드러지

게 나타난 동양의 정신과 접목한 젠 스타일의 문화·예술적 특성과 패션에서의 조형성과 예술적 가치를 디자이너의 전개방법에 따라 살펴보았다.

조영아, 유혜영⁷⁾은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 연구를 통하여 동양모드의 전개과정을 시대와 트렌드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염혜정⁸⁾은 1990年代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의 分析에서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기모노의 이미지와 패션계에 나타난 기모노 디자인을 분석하며 3가지 대표적인 스타일(페미닌 스타일,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 모던 및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분류하여 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의하면 기모노의 세계 패션계에서의 수용은 19세기에는 이국취미를 배경으로 하여 표현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일상적인 시부이 감각(Shibui feeling)을 특징으로 한 포클로어 이미지의 기모노 패션을 표현하였다. 1980년대에는 Yohji Yamamoto와 Rei Kawakubo가 등장하여 금욕적이고 억제된, 무정형의, 성별이 없는, 무채색의 아방가르드 이미지의 디자인을 표현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양면가치에서 비롯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경향을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이국취미나 일본취미 등의 단계를 넘어 동시대적 감각의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윤보연, 배수정⁹⁾은 현대패션에 반영된 전통 미의식의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 미의식을 비교연구를 하여 양국의 전통 미의식과 현대에 반영된 미의식 및 패션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중 현대 패션에 반영된 일본 전통 미의식의 양상을 꾸밈의 미로 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곽태기, 김은정¹⁰⁾은 중국, 일본, 한국의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나타난 토탈 패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삼국의 의상과 화장 및 머리형태의 경향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패션에 반영된 Japanism을 연구하였다.

III. 연구방법

자료는 1991년에서 2000년에 발행된 패션컬렉션 잡지(COLLEZIONI, COLLECTIONS, L'official 1000

models, FASHION SHOW, Mode et Mode)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적 이미지 사진 총 747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747점의 사진 중 의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일본적 이미지 유무에 대한 확인을 거쳐 422점을 연구의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기간은 2002년 6월 25일~2002년 8월 9일 동안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은 학술지, 패션잡지, 신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와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분류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주된 용어의 정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 디자이너 : 일본 태생으로 일본 이름을 사용하며 일본 및 외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서양 디자이너 : 일본을 제외한 타국 태생의 디자이너

IV. 결과 및 고찰

1. Japanism 디자인의 변화 추이

본 연구 대상 자극물을 일본 및 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과 새로운 동양적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쪽인 서양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Japanism 디자인 표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일본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1991년은 주로 색상의 다양화에 주된 표현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형태는 다소 루즈한 실루엣이 주를 이루고 천연 소재인 마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색상은 white와 톤이 낮은 yellow, blue와 같은 차분한 색상과 꽃의 화려한 색상이 공존하고 있으며 문양은 꽃무늬가 부각되는 방식의 소극적인 Japanism을 전개하고 있다.

1992년은 소재와 문양에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 시기이며, H라인과 텐트 실루엣이 주를 이루는 기모

노의 과장된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형태가 많다. 색상은 black, dark red 등의 어두우면서 화려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고, 소재는 광택소재와 따뜻한 펠트 소재가 주로 나타났다. 문양은 기하학적인 무늬보다는 자연과 생활용품(부채 등)의 사실적 무늬가 많이 표현되는 등 일본전통문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3년은 전통의상의 직접적 표현 치중과 컨트리풍의 영향으로 인한 서민적인 일본의상의 등장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형태 측면에서 기모노의 현대적인 해석보다는 전통적 형태의 직접적 차용으로 인한 표현이 나타나고, 색상은 다크 블루(감색)가 주된 컬러로 사용되는 에콜로지 경향을 보여준다. 소재는 소박한 면과 고급스러운 실크 및 벨벳이 공존하는 소재 사용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양은 전체적 문양이 아닌 부분적으로 양식화되어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1994년은 기모노의 현대적 해석으로 인한 모던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색상에서는 grey계열이 많지만 前年보다는 밝아진 오리엔탈계 색상을 사용하는 트렌드의 혼합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광택의 실크 사용이 두드러지고 꽃무늬 사용이 다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은 모던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여성적인 글래머 룩을 표현하고 있다. 색상은 화려한 색상이 첨가된 black & white가 주로 나타난다. 소재는 동양적인 소재를 고급스럽게 재해석하는 화려함으로, 문양은 사실적무늬가 단순화되어 그래픽적으로 나타나는 등 형태를 비롯한 모든 디자인 요소에서 점차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996년엔 화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점차 모던한 기성복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직선적인 기모노의 목, 어깨, 소매 라인을 그대로 차용한 디자인이 많으며, 화려한 색상과 함께 일본의 자수기법과 염색기법이 많이 나타난 화려한 패션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크·벨벳 같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스팅클 등의 장식효과에 기하학무늬 및 자연무늬가 의복 전반에 걸쳐 다채롭고 화려하게 나타난다.

1997년은 아시아의 경제적 침체가 패션에도 반

영되어 이 시기의 Japanism은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우울한 경향을 남성적인 라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1998년은 일본 전통복의 겹쳐 입음을 응용한 레이어드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전히 소박한 색상과 소재가 많이 나타나며, 스포츠웨어와 미니멀리즘 패션경향의 반영과 캐주얼성이 가미된 전통복식의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은 기존에 미미하게 나타난 뒤, 등에 대한 디자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구축적인 형태가 극을 이루며 기모노의 다양한 형태를 미니멀하게 그리고 소박하던 소재의 다양화·고급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Japanism의 표현은 서민적인 소박함과 화려함의 양극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변화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서양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나타난 Japanism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은 일본의 전통적인 여밈과 겹침을 편안한 스타일로 표현하는 소극적인 Japanism을 나타내었다. 이지웨어와 결합한 꼬아서 여민 형식의 편안한 형태를 에콜로지 경향의 천연 소재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으나 강하고 선명한 색상으로 깔끔한 처리를 하고 있다.

1992년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Japanism을 표현하고 있으나, 前年보다 동양적인 여밈에서 다각적인 디자인의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적이며 루즈한 실루엣을 블루와 화이트 같은 차가운 색상 및 광택 소재와 소재의 거친 질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1993년은 전통적인 Japanism 형태가 점차 부각되는 시기로서 일본전통 여밈과 꼬임이 다수 등장하며 분위기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전통남성복의 과장된 형태를 무게감 있고 부드러운 광택 소재를

<표 2> 일본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변화

특성 년도	형태 및 스타일	소재	색상	문양
1991	루즈한 실루엣	천연소재	차분한 색상(yellow, white, blue 등), 꽃의 화려한 색상 공존	꽃무늬 부각
1992	기모노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과장된 실루엣(H, 텐트실루엣)	광택소재와 모	어두우며 화려한 색상 (black, dark red 등)	자연무늬, 생활용품무늬(부채 등)
1993	전통적 기모노형태의 직접적 차용	면, 벨벳, 실크	다크 블루(감색)主	양식화무늬
1994	모던	실크 사용 증가	grey계열 및 밝아진 오리엔탈계 색상	꽃무늬
1995	모던하며 여성적인 글래머룩	소박한 소재를 고급스럽게 표현	black & white(화려한 색상 결합)	양식화 무늬, 그래픽무늬
1996	기모노의 미니멀리즘	실크, 벨벳	화려한 색상, 스팅글, 일본전통 자수 및 염색기법 多用	기하학 무늬, 사실적무늬
1997	남성복화된 기모노의 직선적이고 슬림한 실루엣	서민적 소재 누비기법의 등장	무광택의 어둡고 칙칙한 색상	단순한 기하학무늬의 소극적 표현
1998	캐주얼화, 레이어드와 비구축적형태의 다양화	소박한 소재(거즈, 면 등)	차분한 색상 主, white 색상 부각	자연무늬의 소박한 표현
1999	기모노의 미니멀리즘경향, 여성복의 남성복 경향 심화	실크, 쉬폰 및 하이테크 소재의 등장	grey 부각. 어둡고 우울한 색상	기하학 및 꽃무늬의 화려한 응용
2000	기능성을 가미한 캐주얼 형태	면, 실크, 비닐, 마, 벨벳 등 다양	다양한 색상의 공존	기하학 및 식물문의 화려한 응용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994년은 前年과는 달리 더욱 전통적인 Japanism 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색상과 소재 면에서 일본 전통복식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형태는 직선적이며 풍성한 실루엣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은 적극적인 Japanism 표현의 초기로써 형태 측면에서는 관능적인 일본여성 이미지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실크와 가죽 등을 매치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이 동양풍의 다채로운 자연무늬와 함께 전개되어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1996년에는 형태적 측면에서는 아방가르드와 미니멀리즘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소재의 고급화가 지속되며 상류계급의 남성적이며 클래식한 룩으로 Japanism 표현이 이루어져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은 slim & long의 단순한 실루엣에 기모노의 독특한 특징인 오비의 다양한 변화로 인한 여밈 장식의 변형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옵티컬 무늬가 꽃무늬와 함께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1998년에도 前年에 이어 오비의 변화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태는 미니멀하고 부드러우며 고급스러운 소재와 화이트·베이지 등의 단순한 색상으로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1999년에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기모노의 어깨와 목선, 소매라인의 형태가 차용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스포츠웨어의 실용성과 기능성을 가미한 디자인에 천연소재와 하이테크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Japanism을 선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대다수의 서양 디자이너들 작품 전반에 걸쳐 일본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명실상부한 Japanism의 트렌드 자리 잡음을 알 수 있다. 형태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지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나타나며, black & white와 차분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면서 다양한 소재 가공기술과 개발로 소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Japanism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서양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변화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변화

특성 년도	형태 및 스타일	소재	색상	문양
1991	꼬아서 매는 형식의 여밈을 이지웨어에 결합한 형태	자연적인 느낌의 소재	화려하고 깔끔한 vivid, strong 컬러	
1992	남성적이며 루즈한 실루엣	광택소재, 거친 질감의 소재	blue, white 등의 차가운 색상	
1993	일본 전통남성복 형태의 과장된 실루엣	무게감 있고 부드러운 광택 소재	가라앉은 blue, black & white 主	
1994	직선적이고 풍성한 실루엣	마, 실크	blue, brown, yellow	사실적인 자연무늬
1995	럭셔리한 꾸뛰르스타일(관능적인 여성이미지)	실크, 가죽 등을 다양하게 믹스매치	어두운 색상에 고급스러운 광택 가미	동양풍의 다양한 자연무늬
1996	아방가르드와 미니멀리즘의 공존, 매니쉬 이미지	고급스러운 소재(실크 등)	톤을 낮춘 brown, gold, black 등의 고급스런 색상	화려함. 일본풍 동·식물무늬
1997	slim & long 라인의 색시룩 오비의 다양한 변화	가벼운 소재(쉬폰, 린네, 새틴 등)	파스텔 컬러와 vivid 컬러의 공존	꽃무늬, 옵티컬무늬
1998	미니멀리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면, 쉬폰, 캐시미어 등)	white, beige 등 색상의 단순화	화려한 꽃무늬, 무늬없음 공존
1999	오프스포츠 웨어의 실용적 표현, 해체주의, 색시룩	자연광택의 천연소재, 하이테크 소재	grey 가미된 파스텔 색상과 저채도 색상 主	사실적 식물무늬, 옵티컬무늬
2000	보수적, 폐쇄적,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 혼합	다양하게 가공처리 된 천연 소재	black & white, 차분한 색상	

3)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비교

이상에서 1990年代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한 Japanism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Japanism 표현에 있어서 서양 디자이너들은 기모노의 특징적인 디자인요소(오비, 실루엣, 문양)의 차용을 통하여 주로 고급스럽고 화려함에 비중을 두어 동양적 아름다움을 나타내었고, 일본 디자이너들은 동양의 아름다움을 신비로운 분위기와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위주로 표현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성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서양디자이너들은 관능적인 이미지의 여성성 즉, 에로틱한 표현(제거, 노출 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으나, 일본디자이너들은 동양의 단아하고 정숙하며 우아한 이미지의 여성성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범주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전통남성복식, 겹침, 여밈, 목·어깨·소매, 색채·재질·문양, 뒤와 같은 6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 범주에 있어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표현의 조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디자이너의 Japanism 표현의 조형성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살펴본 일본 디자이너들의 Japanism 표현의 조형성을 간략히 요약하고 대표적인 디자이너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일본 디자이너들은 조형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Japanism을 표현하고 있었다. 전통남성복식의 형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하게 전개되며, 기모노의 독특한 겹침은 서양복의 layering과 전통의 해체 및 비정형화 여밈으로 오비는 겹침의 연장선의 여밈과 부속품이 아닌 의복화된 형식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비교

소속 표현	일본 디자이너	서양 디자이너
특징	- Japansim 표현방식 : 일본적 이미지 위주 - 90年代 초기 : 간접적 표현 - 90年代 중기 : 직접적·전통적 표현 - 90年代 후기 : 서양복화 된 스타일 표현	- Japansim 표현방식 : 일본 전통복식 요소들의 직접적 차용 - 90年代 초기 : 서양복화된 소극적 표현 - 90年代 중기이후 : 적극적·전통적 표현
형태	- 90年代 초기 : 모던, 미니멀리즘 추구 - 90年代 중기이후 : 해체주의적, 비구축적 형태 주 - 90年代후기 : 스포티와 캐주얼 영향 받은 네오미니멀리즘 추구	- 남성적 과장된 형태와 편안한 스타일, 관능적인 여성미를 표현하는 에로틱한 스타일의 양극화
색상	- 전통적 화려한 색채와 소박한 차(茶)색 등의 다양한 변용 - 90年代 후기 : 경제적 여파로 색채 톤 낮아짐. 이후 다시 화려한 색채 사용	- 90年代 초기 : 일본적 색상보다는 세계 트렌드 색상 - 90年代 중기 : 화려한 일본 전통 색채 - 90年代 후기 : 아시아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색채 사용
소재, 문양	- 천연소재(면, 마, 실크 등)의 다양한 사용. 화려하게 또 소박한 서민적 질감으로 다양하게 적용 - 꽃무늬, 생활용품무늬, 기하학무늬	- 실크 사용 많음.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화려한 소재와 문양을 색상과 함께 사용한 고급화경향 - 꽃무늬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 디자이너	Hanae Mori, Issey Miyake, Junya Watanabe, Junko Shimada, Kansai Yamamoto, Kenzo, Koji Tatsuno, Murayama, Magaki, Yohji Yamamoto, Yuki Torii	Blanken, Christian Lacroix, Calvin Klein, Christian Dior, D&G, Claude Montana, Jean Louis Sherrer, Jean Paul Gautier, John Galliano, Les Copoans, Michel Klein, Moss, Per Spook, Y.S. Laurent

2. Japanism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본 연구 대상 자극물을 조형적 특성에 따라 분류

특히 색상·소재·문양에서 디자이너들의 독특한 철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화려한 색채보다는 차분하고 어두운 서민적인 색채를 주로 사용하며, Issey

Miyake와 Yohji Yamamoto 등은 소재와 라인의 비구축적인 표현으로 세계에 일본 디자이너의 위상을 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많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주로 색채, 재질, 문양의 다양한 변화(출현 빈도:44.0%)를 통한 Japanism 표현이었으며, 이는 일본 디자이너들은 독특한 일본적 색채와 무늬, 소재를 통하여 Japanism을 은근하지만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적으로 재해석하여 의복의 전면에 전체적으로 부각시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화려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럭셔리한 Japanism의 표현에 주력하였다.

Yohji Yamamoto는 Rei Kawakubo와 함께 '과파 패션'으로 패션의 性개념을 초월하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독창적이고 비구축적인 형태의 디자이너로서, 색상은 단색의 다크블루(감색), black, white를

<표 5> 일본 디자이너들의 Japanism 디자인의 조형성

전통남성복식 <그림 1>	겹침 <그림 2>	여밈 <그림 3>
- 90年代후반부터 전통남성복식의 다양한 표현 시도(아이템, 라인 등) - 타요소 보다 전통적 표현성 짙음 - Kenzo	- 단겹침, layering - 전통적, 비정형적, 해체주의적 표현 - 겹침 자체의 여밈화 - Junya Watanabe, Yohji Yamamoto	- 부속품화가 아닌 하나의 의복화 - 오비차용, 비대칭 감음, 겹침의 연장에 의한 여밈 - Yohji Yamamoto
목, 어깨, 소매 <그림 4>	색채, 재질, 문양 <그림 5>	뒤 <그림 6>
- 변형된 비대칭 실루엣, 서양식 칼라·팔 형태가 집목된 실루엣 - Junya Watanabe, Issey Miyake	- 블랙, 다크 블루(감색)와 전통의 차(茶)색 多用 - 주로 거친 천연소재 多用 - 꽃무늬 多用 - Issey Miyake, Kenzo, Hanae Mori	- 뒷부분을 짓힌 은근한 관능미 - 오비의 캐주얼한 변형 - 뒷태의 앞태화(반대법) - Junya Watanabe, Kenzo



<그림 1> Kenz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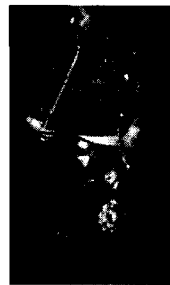
<그림 2> Yohji Yamamoto 1994



<그림 3> Yohji Yamamoto 1994



<그림 4> Junya Watanabe 1999



<그림 5> Kenzo 2000



<그림 6> Kenzo 1999

Kenzo Takada는 민속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으며 동양식 전통적인 꽃무늬와 서양식 꽃무늬를 곁고루 변형, 조합하여 그의 화려하고 뛰어난 색감으로 동서양 모두에 어필하는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는 전통남성복식 형태와 겹침, 여밈 등이 변형된 방법으로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Hanae Mori는 매우 일본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여성의 인체 곡선미를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우아하고 섹시한 여성미를 잘 표현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기모노의 여성미에 전통색상과 문양을

주로 사용하고, 평면재단의 직선적인 형태의 루즈한 실루엣을 사용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조금은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주로 표현한다. 여밈에 있어서 커다란 오비의 사용보다는 시고키(扱き)를 사용한 형태가 많았으며 이를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서양복화하여 사용하고, 비대칭적인 단처리와 칼라, 다양한 소재 질감 표현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Issey Miyake는 동양과 서양의 미학, 과거와 미래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풀어낸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형태는 옛 사무라이복 즉, 전통남성복식 형태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의 옷은 물질적·기술적 전진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일본 의상이나 소재를 기술에 걸맞게 변형시켜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그는 Japanism의 표현에 있어서도 인체의 굴곡을 인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천을 평면재단하여 그것을 몸에 걸쳐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라인을 선호하며 입는 사람과 착장법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비정형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소박한 소재(면, 마, 폴리에스테르 등)를 사용하고 일본전통색채(차색, 감색, 흰색 등)를 주로 사용하지만 그 디자인 전개방법은 서양복화를 넘어 디자이너 철학이 만들어낸 비구축적인 방법의 독특한 Japanism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표현의 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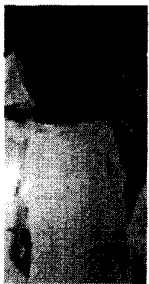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살펴본 서양 디자이너들의 Japanism 표현의 조형성을 간략히 요약하고 대표적인 디자이너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서양 디자이너들은 일본 전통남성복식의 형태에서 현대적이고 편안한 도시 여성의 모습을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겹침과 여밈을 활용하여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고 서양복의 특성을 약간 가미하는 전개법을 보여주었다. 즉, 서양복의 특성에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차용하여 가미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주로 화려한 소재와 꽃무늬를 사용하여 이국적인 특성을 살려주었다.

90년대 초반에는 New York 중심의 간결하고 모던한 라인을 선호하는 디자이너들(Calvin Klein, D&G, PRADA)과 급진적인 작품성향을 가진 디자이너들(Jesus Del Pozo, Teierry Mugler)에 의해 일본 전통복식의 직선적이며 비대칭적인 '라인' 위주의 요소들(겹침, 여밈, 목·어깨, 남성의복형태)이 Japanism으로 표현되어졌다. 이국적인 취향과 타문화에 대한 관심, 에콜로지의 재등장, 오리엔탈리즘의 대두와 함께 90년대 중반부터는 Christian Dior, Christian Lacroix, Jean Paul Gautier, Yves Saint Laurent과 같은 세계 정상급의 서양 디자이너들도 가세하는 등 Japanism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

<표 6> 서양 디자이너들의 Japanism 디자인의 조형성

전통남성복식 <그림 7>	겹침 <그림 8>	여밈 <그림 9>
- 90年代 초반부터 지속적 관심 - 현대화된 편안한 스타일 추구 - 고급화 지향 - Christian Dior, Jean Paul Gautier 목, 어깨, 소매 <그림 10>	- 90年代 초·중반 : 전통 일본식 겹침과 서양식 여밈의 조합 - 90年代 후반부터 전통적 표현 主 - Ferragamo, Blaken 색채, 재질, 문양 <그림 11>	- 90年代 중반부터 직접적 전통방법 표현(다른 크기를 사용한 이중 여밈, 오비 형태 차용) - Jean Paul Gautier Paul 뒤 <그림 12>
- 90年代 초반 : 기모노 네크라인에 서양식 칼라 조합 - 90年代 후반 : 보다 전통적 형태 표현 - John Galliano	- 화려하며 다양한 색상배합 - silk, 시쓰루 등 화려한 소재 사용 - 꽃무늬 多用 - Christian Lacroix Yves Saint Laurent	- 1999년. 뒷부분의 변형 형태 빈도 증가 - Jean Louis Sherrer



<그림7> Jean Paul Gautier 1999

<그림8> Blaken 1998

<그림9> Paul 1999

<그림10> John Galliano 1995

<그림11> Yves Saint Laurent 1994

<그림12> Jean Louis Scherrer 1997

사용된 서양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중 최다 출현 빈도 수가(25.9%) 여밈을 변형한 Japanism 디자인의 전개로써 이는 기모노의 오비가 서양 디자이너들에 있어 Japanism을 표현하는 아주 큰 특징으로 차용·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hristian Lacroix는 '정반대의 조화가 매력적이다'라는 디자인 철학처럼 전통남성복식, 겹침, 여밈, 목·어깨·소매, 색채·문양에 걸쳐 다양하게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1994년에는 오비와 이면배색의 전통 문양, 1995년에는 소매와 직선적인 기모노 라인의 표현, 1996과 1997년에는 전통남성복식 형태에 겹침 및 기모노의 목선에 화려한 일본전통문양과 색채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Japanism을 표현하였다.

터부를 깨는 '유쾌한 반란자'라는 이름의 파격적인 작품세계를 이끌고 있는 Jean Paul Gautier는 주로 오비의 형태와 기모노 라인을 사용하여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1999년에는 그의 파격적인 감각으로 기모노 색상의 직접적 차용인 화려한 자수를 의복 전체에 놓은 강렬함을 아방가르드한 형태에 접목시켜 Japanism을 표현하였다.

오뜨 꾸뛰르의 대부라 할 수 있는 Yves Saint Laurent도 그의 클래식한 감각을 고급소재인 실크를 사용하여 일본 전통남성복식의 형태인 하오리(羽織)를 그대로 차용한 의상을 발표하는 등 전통남성복식 라인을 차용하여 클래식하고 매니쉬한 이미지의 여성복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 조형성 비교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의 Japanism 디자인의 조형성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전통남성복식 형태 차용이 1990년대 초·중반기에는 일본 디자이너들 보다는 서양 디자이너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양 디자이너들은 전통남성복식의 과장된 크기를 여성복으로 현대화하여 좀더 편안하고 루즈한 형태로 활용하였으며, 고급스러운 소재에 무채색과 차분하고 어두운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특히 서양 디자이너들의 전통남성복식 표현은

주로 매니쉬, 엘레강스, 모던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노출에 의해 여성의 우아함과 섹시함 및 에로틱한 면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일본 여성의 전통복식이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물이 되어 이국적이고 에로틱한 여성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¹¹⁾는 선행연구와 결부시켜 볼 때, Japanism의 표현에 있어서 여성의복의 차용은 여성의 관능성을, 남성의복의 차용은 엘레강스하고 매니쉬한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적극적인 Japanism과 함께 더욱 전통적인 남성복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처럼 풍성한 실루엣은 편안하고 유연한 하이테크 소재와의 결합으로 이 시기에 유행하는 이지웨어, 소프트 캐주얼에 잘 부합되고 있다.

둘째, 일본 디자이너들의 겹침 표현은 아주 전통적인 표현, 비정형적인 표현, 해체주의적 표현, layering에 의한 표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겹침과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여밈 부분에서 서양식의 연결 방식이 거의 없으며 겹침 그 자체로 여밈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서양 디자이너들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 기모노 방식의 겹침이 Japanism의 표현요소로써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나 서양식 여밈 방법(단추, 벨트)을 함께 사용하여 서양복화된 형태를 취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겹침 정도와 모양에 전통적인 형태의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 디자이너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겹침과 그에 따른 여밈 방법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일본 디자이너들처럼 겹침 자체를 하나의 여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Japanism을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여밈은 '오비'라는 다양한 너비와 색상, 문양을 가진 대가 가장 대표적이다. 일본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코트의 끈처럼 잡아매어서 옷깃을 여며주는 부속품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টে으로써 오비와 같이 대를 사용하여 인체의 일부를 감싼 여밈, 의복에 부착된 끈을 여러번 비대칭적으로 감아주는 여밈, 겹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겹침의 연장으로 인한 여밈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양 디자이너들은 초기에는 단순히 매어서 늘어뜨려 주는 방법이 많았는데 이것은 일본 전통 방법보다는 서양화된 경우가 많았

다. 1990年代 중반에 들어오면서 큰 대를 두르고 그 위에 보다 얇은 끈으로 한번 더 감은 여밈, 오비 형태, 전통 여밈의 중복 등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넷째, 일본 디자이너들은 1990年代 중후반기에 이르러 목과 어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많이 시도했으며, 전통적 형태보다는 오히려 변형된 형태의 비대칭적인 실루엣, 서양식의 칼라, 팔 형태와 접목된 목과 어깨의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서양 디자이너들은 어깨보다는 목 부분에서 Japanism을 많이 표현했는데 그 대부분이 서양인들이 '기모노 네크라인'이라고 부르는 형태이다. 1990年代 초·중반까지는 전통적인 것처럼 형태와 거기에 서양식의 칼라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목과 함께 팔까지 이어지는 보다 전통적인 기모노 형태가 많이 등장했으며 Christian Dior, Valentino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해체주의적인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섯째, 일본 디자이너들은 전통복식인 기모노에 서처럼 여러 색상을 섞어서 배합하기도 하지만, 이끼 취향인 '다크 블루(감색:사무라이색)'계통의 blue와 grey, 서민복에 나타나는 brown계열의 다각적인 해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어두운 계열의 색상은 모던, 엘레강스, 아방가르드한 이미지 표현에 주로 사용되어 차분하고 단아한 여성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소재는 일본전통의 생사를 사용한 구겨진 듯한 거친 질감의 소재, 천연소재인 면과 마, 실크에 이르기까지 주로 전통소재의 사용과 그것들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90年代 말에 이르러서는 하이테크 소재의 사용 등 다각적인 Japanism을 전개하고 있다. 서양 디자이너들도 역시 Japanism 표현으로 의복전면에 걸친 색상의 화려함과 다채로운 배합을 사용하였으나, 그 화려함은 일본 디자이너들과 달리 좀더 광택있는 소재와 색상이었으며 이를 실루엣과 함께 관능적인 여성미 표현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미지의 부각을 위해 소재 역시 실크나 얇은 소재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꽃무늬도 Japanism 표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특히 그것은 서양 디자이너들에 있어서 더욱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문양의 대부분이 꽃무늬(매화, 국화, 당초, 난초)이고 문양의

표현에 있어서는 매우 사실적인 일본 전통 그대로의 표현방법으로 행하여지거나 그것을 간단히 그래픽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인의 감성이 짙은 수목화와 같은 문양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문양 역시 꽃무늬가 많이 보이지만, 1990年代 초반에는 서양화된 꽃무늬(국화, 당초, 모란, 장미), 중반에는 특정부분만 그래픽화한 단순한 꽃무늬(국화, 구절초, 난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서민복에 나타나는 소박한 꽃무늬(국화, 매화, 구절초), 말기에는 전통적인 기법 그대로의 화려한 꽃무늬(당초, 난초) 등 그 표현이 무척 다채롭다. 또 꽃무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모노에 나타났던 자연, 생활용품(부채, 바구니, 깃발 등), 사람, 동물(새, 나비, 물고기 등), 기하학문(원, 격자, 줄무늬 등)등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채롭다. 그리고 표현법도 전통적인 자수와 염색방법, 서양화시켜 모던화 및 축약된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인간이 다른 인간을 감상할 때 옆이나 뒤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전통복식은 다른 나라의 것들과 달리 전면과 함께 후면에도 문양이 화려하게 나타나 있다. 여밈의 매듭이 뒤로 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앞 옷깃을 뒤로 살짝 젖혀 입어 여인의 아름다운 목선을 보여주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성의 영향으로 일본 디자이너들은 의복 뒷부분의 디자인과 표현에 무게를 실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모노 형식을 따라 뒷부분을 젖힌 은근한 관능미의 표현, 오비를 캐주얼하게 변형시켜 장식한 표현, 여밈과 겹침 부분을 마치 앞부분처럼 한 표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서양 디자이너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Japanism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써 자리잡은 1999년에 이르러 Jean Louis Scherrer 등에 의해 뒷부분의 변형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비록 많은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지는 못 하였지만 서양 디자이너들에 있어서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인 뒷부분까지 Japanism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다양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세계 패션계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Japanism 디자인을 1991년부터 2000년도 까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일본 디자이너와 서양 디자이너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Japanism 디자인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Japanism의 표현은 일본 전통복식의 디자인 요소들을 직접적인 차용하는데서 시작하여 점차 패션 트렌드와 결합하는 간접적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본 디자이너들의 Japanism 표현 방식은 전통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주로 하고 있다. 특히 형태보다는 색채, 소재, 문양을 통하여 자국의 독특한 동양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 서양 디자이너들은 전반적으로 이미지보다는 일본 전통복식의 디자인요소를 직접적으로 차용하는 것을 통하여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겹침, 여밈, 일본전통 남성복식형태 등을 직접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함을 통하여 독특한 동양미(東洋美)인 Japanism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오리엔탈리즘 중에서도 Japanism에 대하여 신선함과 새로움을 가진 서양 디자이너들은 직접적인 형태의 접목으로 Japanism을 나타내려고 하였고, 일본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가진 친숙한 고유의 형태적 특성보다는 동양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세계화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렌드와는 별도로 표현되던 Japanism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패션의 기능성 추구 경향과 함께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특성을 첨가하여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쾌적한 스타일이 추가되면서 Japanism의 또 다른 모습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Japanism 디자인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비서구적 개념의 복식을 디자인하기 위한 표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이 비교 연구는 향후 한국 디자이너와 패션산업의 해외

진출 시 보다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염혜정 (2001).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의 分析.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5(3), pp. 95-109.
- 2) 北村哲郎 著(李子淵 譯) (1999). 日本服飾史, 서울: 경춘사, p. 149.
- 3) 이정후, 양숙희 (1997).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禪美學의 경향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후 Rei Kawakubo, Issey Miyake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7), pp. 1184-1195.
- 4) 김희정, 이경희 (2000).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제1보)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1), pp. 24-33.
- 5) 김희정, 이경희 (2000).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제2보)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3), pp. 313-322.
- 6) 조미정, 김예형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쟈(zen:禪)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50(6), pp. 163-175.
- 7) 조영아, 유혜영 (2001).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 연구. 복식, 51(5), pp. 17-28.
- 8) 염혜정. 앞의 책, pp. 95-109.
- 9) 윤보연, 배수정 (2001). 現代패션에 反映된 傳統 美意識의 研究 -韓國과 日本의 比較研究를 中心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5(4), pp. 56-72.
- 10) 광태기, 김은정 (2002). 중국, 일본, 한국의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나타난 토탈패션(Total Fashion)에 관한 연구. 복식, 52(4), pp. 109-127.
- 11) 염혜정. 앞의 책, pp. 95-109.